삶은 여러 색깔 기억을 찾아 떠나는 여행

색채가 없는 다자키 쓰쿠루와 그가 순례를 떠난 해

무라카미 하루키 장편소설

양억관 옮김

무라카미 하루키(64)가 돌아왔다. 지난 1일 출간된 장편 '색채가 없는 다자키 쓰쿠루와 그가 순례를 떠난 해'는 하루키가 3년 만에 내놓은 야심작이다.

하루키의 소설을 기다렸던 독자들에게는 반가운 단비다. 일본에서만 초판 50만 부 인쇄, 출간 7일 만에 100만 부를 돌파했다. 역시 "하루키"라는 찬사가 잇따랐다.

그러나 전작과 비교해 새로운 시도를 찾을 수 없다는 평도 있다. "소문난 잔치에 먹잘 것 없다"는 반응부터 지나친 쏠림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없지 않다.

이 같은 엇갈린 반응은 하루키 독자층이 그만큼 스펙트럼이 넓다는 방증이다. 작가는 작품으로 말한다는 고전적인 명제에 기댈 수밖에 없다. 신작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자.

작품은 36세 남성 다자키 쓰쿠루가 순례의 여정을 떠나는 과정을 담고 있다. 그는 어느 날 뚜렷한 이유도 없이 네 명의 친구(아오, 아카, 시로, 구로)로부터 절교를 당했던 기억을 떠올린다. 일대 일의 단절도 고통스럽지만 일대 다의 관계에서 비롯된 파국은 그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린다.

"그 일이 일어난 것은 대학교 2학년 여름 방학이었다. 그리고 그 여름을 경계로 다자키 쓰쿠루의 인생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지고 말았다."

그는 여자친구인 사라로부터 친구들을 만나라는 제안을 받고, 고향인 나고야와 핀란드까지 건너간다. 예전의 친구들을 한명씩 만나면서 주인공은 절교를 당한 이유와 친구인 시로에게 닥친 비극을 듣게 된다. 그가 대학 재학 때에 시로를 강간했다는 소문이 돌았고 친구들은 시로를 지키기 위해 그를 외면한 거였다. (친구들은 다자키 쓰쿠루가 시로를 범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얼마 후 시로는 누군가에게 살해를 당한다. 친구들과 소원해진 다자키 쓰쿠루는 도쿄로 떠나고 철도회사에 입사한다.

절교 이유에 대해 듣게 된 다자키 쓰쿠루는 다시 도쿄로 돌아온다. 도쿄에는 그가 사랑하는 연인 사라가 있다.

스토리라인은 너무도 단순하다. 그에 비해 심리를 파고드는 묘사는 유려하다. 짧고 강렬한 문장은 하루키 특유의 울림이 있다. 고독한 도시인의 내면을 그렸던 초기작 '노르웨이 숲'이 어른거린다.

주인공 다자키 쓰쿠루는 철도 회사에서 역을 설계한다. 쓰쿠루는 일본 말로 '만들다' 라는 의미를 상징한다. 그에게 역을 만든다는 행위는 세상이라는 타자와의 연결을 의미한다. 그의 무의식속엔 단절의 경험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배어 있는지 모른다.

사람은 누구나 여러 관계를 맺는다. 친밀한 공동체도 있고 불편한 조직도 있다.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끝없이 무언가를 만드는 과정이다. 누군가를 만나고, 헤어지는 것은 불변의 진리다.

'색채가 없는' 생을 사는 주인공 다자키 쓰쿠루의 내면엔 빨, 주, 노, 초, 파, 남, 보처럼 여러 색깔의 친구가 있었다. 우리들의 내면도 별반 다르지 않다. 여러 빛깔의 사람들에 대한 기억이 한 구석에 남아 있을 뿐이다. 그 기억을 가지고 저마다의 생을 사는 거다.

〈민음사·1만48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젖병·안경·건반·헬멧… 익숙한 사물에 대한 호기심

'사물의 역습'

에드워드 테너 지음

"피렌체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전역의 도시와 수도원에서 안경 사업이 번영하던 시기와 제지공장과 인쇄소가 유럽 전역으로 퍼지던 시기가 일치하는 것은 그저 우연에 불과할까? 인쇄된 매체와 안경은 동일한 시장을 대상으로 한다. 즉 성직자, 평신도, 서기, 학생, 상인, 장인 등 독서를 비롯한 세심한 작업에 매진하는 사람들이 그 대상이다."

인간이 고안하고 발전시킨 9가지 물건에 관한 이야기가 책으로 나왔다. 젖병, 안경, 안락의자, 건반, 헬멧 등 주변의 사물이 어떻게 발명되고, 사람들의 생활 방식에 영향을 끼쳤는지를 자세하게 보여준다.

앞서의 사물들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현대 문명이 낳은 산물임에는 틀림없다. 책은 테크놀로지와 테크닉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일상의 사물을 분석한다. 테크닉은 사용하는 방법이며, 테크놀로지는 도구 자체와 연관돼 있다. 저자는 사물의 발명과 사용법의 발전 관계 사이의 사회적, 철학적 의미를 부여한다.

"테크놀로지와 테크닉 간의 관계는 상호보완적이다. 새로운 사물은 행동을 변화시키지만, 그 변화가 항상 발명가나 생산자의 예상대로만 진행되지는 않는다. 사람들의 행동 변화는 새로운 도구의 영감이 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도구는 더 많은 혁신을 낳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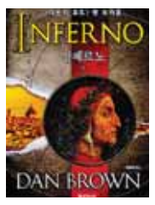
〈오늘의 책·1만65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로버트 랭던, 미래과학과 연결된 수수께끼를 풀어라

'인페르노 1·2'

댄 브라운 지음



전 세계 9000만 부라는 경이적인 판매기록을 세운 초대형 베스트셀러 '다빈치 코드', 출간 첫 주 역사상 최단 기간 가장 많이 팔린 소설 기록을 창조한 '로스트 심벌'. 신작을 출간할 때마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작가 댄 브라운이 4년만에 신작 '인페르노'로 돌아왔다.

'인페르노'는 코드, 상징, 예술, 독자들이 탐험해보고 싶을 이국적인 장소들로 가득한 스릴러다.

저자는 중세 이탈리아의 또 다른 천재 단테 알리기에리의 불후의 명작 '신곡'을 이번 소설 메인 테마로 사용했다. 단테의 '신곡' 지옥편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무시무시한 천재 과학자가 세상을 바로 잡으려는 강력한 동기로 작용한다.

'신곡'의 끔찍한 세계로 끌려들어간 주인공 로버트 랭던은 전 세계에 연결된 조직구조와 전용 위성망까지 갖춘 잔인한 집단 '컨소시엄'과 마주하며 고전 예술과 비밀 통로, 미래의 과학과 연결되는 수수께끼를 풀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적에 맞서 문제를 해결한다.

그동안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온 댄 브라운의 문체는 이번 소설에서도 여전히 빛난다. 3년이라는 집필 기간을 거쳐 완성된 '인페르노'는 '빠른 진행'과 '간결한 문체', '매력적인 소재'라는 작가의 장점이 그대로 살아있어, 다시 한번 전 세계에 '댄 브라운 신드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문학수첩·각권 1만30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감정은 더 이상 개인의 것이 아니다

'감정의 인문학'

소영현 외 지음

'감정'에 대한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풀어낸 책이 출간됐다. 연세대학교 HK연구교수인 소영현, 이하나, 최기숙 세 명의 저자가 쓴 '감정의 인문학'은 감정에 관한 탐구서다.

자본주의적 성공신화와 긍정심리학은 근심이나 우울 같은 부정적 감정을 개인적인 약점으로 돌린다. 지금까지 감정 교육은 표현하기보다 절제하는 데 중점이 주어져 왔다. 심지어 감추고 위장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치부되었다.

그러나 감정과 노출은 더 이상 온전히 개인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극단적인 감정의 절제와 부정은 타인의 심리를 이해하려 들지 않는 태도를 초래했고 관계의 단절을 불러왔다. 사실 소통 부재의 현실은 이러한 감정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측면이 많다.

감정은 개인의 영역에서 발생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다. 인종, 국가, 계급, 젠더 차원의 위계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보아필·1만5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보통사람들의 빠르고 경쾌한 수다

'알레그로 마에스토소'

이진 지음

광주여대 교양학부 교수인 이진 작가가 신작 '알레그로 마에스토소'를 펴냈다.

알레그로 마에스토소는 쇼팽의 피아노곡 제목 중 하나다. 알레그로는 '빠르게, 경쾌하게' 라는 뜻을, 마에스토소는 '장중하게'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가벼운 유머 속에 깃든 삶에 대한 통찰이 내재돼 있다는 뜻이다.

작가는 초라한 일상을 견디며 살아가는 소시민의 내면을 다채롭고 풍요로운 언어로 형상화한다. 모두 8편의 소설은 서사의 본질에 충실한 작품으로 이야기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인물들의 수다와 익살은 빠르고 경쾌할 뿐 아니라 삶의 부조리와 모순을 드러내는 장치로 쓰인다.

고인환 평론가는 "안정된 문체, 탄탄한 서사 구조, 섬세한 내면 묘사, 살아 숨 쉬는 캐릭터, 경쾌한 언어 감각 등 단편소설이 갖추어야 할 요소들을 두루 겸비하고 있는 수작"이라며 의미를 부여한다. 〈새미·1만9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유럽인들이 오기전부터 라틴아메리카는 문명사회였다

'오래된 신세계'

숀 윌리엄 밀러 지음

"역사 속에서 인간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으리라는 것은 편견에 불과할 수도 있다. 더 나아가 무한한 발전을 뒤쫓는 이들에게는 당신 또한 사라져도 상관없는 '자연'일 수 있다."

미국 브리검영대학교 역사학부 숀 윌리엄 밀러 교수가 쓴 '오래된 신세계, 다음 단계의 문명을 위하여'는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환경사 연구 성과를 종합한 책이다.

저자는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과 라틴아메리카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을 연결 지으며 새로운 지평을 펼쳐보인다. 6세기 전 아스텍 왕국의 수도 테노치티틀란에서 먹을 것을 찾는 전략부터 오늘날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벌어지는 투쟁까지 폭넓게 살폈다.

책은 유럽 정복자들이 오기 전 라틴아메리카 대륙이 텅 빈 야생 상태였다는 이른바 '신세계 신화'를 깨면서 출발한다. 20세기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신대륙이 발견된 1492년 이전만 하더라도 라틴아메리카 인구가 4000만~7000만명이었다고 지적한다. 이어 4000년 넘게 뛰어난 문화를 일궜던 라틴아메리카인의 90%가 유럽 정복자를 따라온 병원균 때문에 사라지게 된 과정과 일부 부족이 사람을 잡아먹은 이유 등도 전한다.

저자는 한국어판 출간에 "이 환경사는 한국에서 식민주의로 생겨난 변화를 다룬 것일 수도 있고, 빠른 산업 발전 및 도시 성장에 따른 문제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너머북스·2만5000원〉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신간

▲세계화와 디지털 문화 시대의 한류=10년이 훌쩍 넘은 한류 물결. 우리는 그들이 열광하기에 그저 신기해하거나 흐뭇해 하고 있을 뿐, 이 물결의 정체에 대해 그리 많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한류는 과연 얼마나 새로운 물결이고,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세계화와 디지털 문화 시대의 한류'는 우리가 결여하고 있던, 한류에 대한 거시적이고도 심층적인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한울아카데미·2만9000원〉

▲그레이마켓이 온다=고령화가 가속하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 고령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많지만 고령화시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명확한 해답은 없다. 이 책은 일본에서 베이비부머와 시니어 산업, 고령사회 등의 핫이슈를 오랫동안 연구해 온 전문가 무라타 히로유키의 통찰이 고스란히 담긴 미래 시장 분석서다. 그의 미래전망에 귀 기울여 이미 실현되고 있는 미래 시장 '그레이마켓'에 대비하라. 〈중앙books·1만3000원〉

▲한낮인데 어두운 방='냉정과 열정 사이 Rosso'로 국내 독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온 작가 에쿠니 가오리의 수상쩍은 불온소설. 그녀는 이번 소설에서 사랑이라는 감정이 어떻게 생겨나고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그 떨리는 마음의 경로를 보여준다. 3인칭 시점으로 등장인물들의 마음을 따라가며 표현해 냄으로써 그 떨림을 독자들에게 고스란히 전달하는데 한 몫을 한다. 〈소담출판사·1만2000원〉

▲청혼:너를 위해서라면 일요일엔 일을 하지 않겠어=건축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로 밤낮없이 죽을 것처럼 일만 하던 남자. 빨간색 헬멧을 뒤집어쓰고 있는 캐릭터와 '오기사'라는 필명으로 친숙한 오영욱이 사랑에 빠져버렸다. 자신이 가장 잘하는 방법으로 청혼하겠다는 그는 그 청혼의 매개체로 이 책을 택했다. 여행작가로서가 아닌 한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로서의 인간적인 면모를 그의 일기장 훔쳐보듯 살펴볼 수 있다. 〈달·1만3500원〉

▲길에서 만나다 1, 2=서정성 넘치는 글과 그림으로 네이버 웹툰에서 꾸준한 인기를 얻었던 '길에서 만나다'가 책으로 출간됐다. 함께 서울을 걷고 대화하고 마음을 주고받으며 꿈과 사랑을 향해 서툰 걸음을 내딛는 청춘들의 이야기다. 보는 순간 힐링이 되는 풋풋한 수채화 그림과 오랜 여운을 남기는 에세이는 어떤 웹툰에서도 만나지 못한 휴식과 위안을 전한다. 〈예담·각 권 1만2000원〉

▲5극지=“이것이 진짜 사나이들의 탐험이다!” 탐험가 홍성택 대장이 전하는 치열한 극지 체험 기록. 그는 세계 최초 베링해협, 그린란드, 북극점, 에베레스트, 남극점까지 3극점 2극지를 탐험한 행복한 산악인이다. 그가 탐험하면서 겪은 온갖 어려움과 생각지도 못한 난관에 부딪히며 극복한 이야기를 담았다. 한 인간이 한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지구 끝까지 걸어간 이야기가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드림앤·1만3000원〉

어린이 책꽂이

▲예쁜 얼굴 팝니다=“예뻐지고 싶니? 반짝반짝 얼굴 가게로 오렴! 네얼굴을 주면 예쁜 얼굴로 바꿔 줄게!” 외모를 최고로 중요시 여기는 요즘 아이들의 세태를 고스란히 투영한 동화책이 나왔다. '예쁜 얼굴을 파는 가게'라는 독특하고 재미있는 설정을 통해 외모에 대한 아이들의 솔직한 생각과 고민을 밝고 유쾌하게 풀어낸다. 〈푸른숲주니어·9000원〉

▲수학이 정말 재미있어요=교육과학기술부가 내놓은 '수학교육 선진화 방안'에 부합하는 수학책. 주인공 소년이 새 학년 첫 날부터 학기가 끝나는 날까지 수업시간과 소소한 일상을 통해 수학의 원리와 개념을 알아가는 과정이 흥미롭게 전개된다. 내용에 딱 맞는 귀여운 그림과 함께 소년이 직접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에코리브르·1만1000원〉

▲명탐정 시토=사고력과 추리력을 키워주는 저학년 추리 동화. 알쏭달쏭 이상한 사건을 도맡아 해결하는 작고 귀여운 땅딸보 형사 시토가 자신과 정반대로 꺽다리인 조수 칭칭과 함께 사건을 해결한다. '명탐정 시토' 시리즈는 모두 일곱권으로 구성돼 있다. 1권 '꺽다리조수 칭칭을 만나다' 편에서는 백만장자의 도둑맞은 고급 식기세트를 찾는 모습을 그렸다. 〈풀빛·각 권 9000원〉

▲아기 곰과 나뭇잎=자연의 경이로움에 눈을 뜨는 아기 곰의 모습을 담은 그림책. 2011년 칼데콧 아너 상을 수상한 데이비드 에즈라 스테인의 작품이다. 책 속의 아기 곰은 사계절이 가져다주는 설렘과 행복의 기쁨을 발견한다. 그리고 계절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받아들이는 아기곰의 천진난만한 모습이 잔잔한 여운을 남긴다. 〈시공주니어·9000원〉

▲딱 하나만 더 읽고!=책 읽기를 재미있게 만들어 주는 마법 같은 책. 반복, 운율, 리듬 등으로 구조화 돼 읽기 능력을 키워줄 수 있도록 설계된 이야기다. 혼자서 읽기를 시작한 어린이한테는 스스로 한편 한편 읽어내는 성취감을, 엄마가 읽어주는 어린이한테는 읽고 싶다는 '성취동기'를 자극한다. 〈한솔수북·1만2000원〉